

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전남도내 압도적 1위

지류형 상품권 발급 물량 확보·배부 시스템 조기 구축, 준비된 행정력이 만든 신속한 민생 회복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전라남도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신속한 행정력과 현장 중심 민생 회복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전국적인 지류형 상품권 수요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발급 물량 확보와 배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전량 발행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실무부서 간 협업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지류형 상품권 중심의 계획 수립·물량 확보·가맹점 관리·읍면 지원 인력을 전방위로 투입하며 지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읍면 단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도내 지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군민 1인당 최대 55만 원 상당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돼, 지역 골목상권

중심의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을 권장하며, 군 누리집과 SNS를 통해 가맹점 및 사용자 안내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소비 유도-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액 대비 2~3배에 달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골목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성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총 112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선제적 경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82억 원 규모의 1차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중



기-장기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민생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높은 지급률은 단지 행정 속도만이 아닌, 군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형 대응의 결과"라며 "이번 소비쿠폰이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지역 경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현재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발급 독려를 진행 중이며,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등 현장 방문 배부를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자 안내, 마을 방송, SNS 등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률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보성/김은기 기자

워터파크 부럽지 않다!

곡성 서머존 3스팟에서 즐기고 선물도 받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내 주요 물놀이장을 연계한 '곡성의 썸머 트리플! 물놀이 삼총사 대모험'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곡성군의 대표 여름 관광 명소인 ▲섬진강기차마을 ▲도립사 오트캠핑장 ▲대항강자연휴식처 협장 세 곳을 배경으로 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참여자는 곡성군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팔로우한 뒤, 3곳 중 2곳 이상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때 해시태그로 #곡성여행, #섬진강기차마을, #곡성물놀이장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인증하거나 3곳을 모두 방문하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군은 이벤트 참가자 중 총 40여 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8월 29일 곡성군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다.

올해 이벤트는 특별함도 더했다. 섬진강기차마을 물놀이장이 처음 임시 개장하며 가족 단위 관광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올해 리뉴얼을 통해 새단장한 도립사 오트캠핑장도 어린



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군은 다만 이번 이벤트와 연계된 물놀이장별 운영 시간과 이용 요금이 다르다며 방문 전 확인을 당부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여름 곡성의 시원한 자연 속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인증샷으로 소중한 추억도 남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SNS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물놀이 시설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다압면 일원에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제31보병사단 이순신여단, 광양소방서 및 광양의용소방대연합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광양시 자원봉사단체, 광양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복구 활동 집중기간(7월 21일~26일) 동안 제31보병사단 이순신여단 장병 140여 명, 광양의용소방대연합대 85명, 공

광양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전방위 수해복구 활동 전개

제31보병사단 이순신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 371명 참여

무원 56명, 자원봉사단체 65명,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 의원 25명이 참여해 총 371명이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침수 피해 가옥의 토사 제거, 주택 내부 청소, 가재도구와 폐기물 수거, 하천 주변 나뭇가지 정리 등 복구 작업에 온 힘을 쏟으며 이

웃의 아픔을 함께했다. 시는 폭염 속 복구 작업에 참여한 인력을 위해 생수, 수박, 간식, 도시락 등을 제공하며 온열질환과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했고, 복구 활동은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호우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집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는데,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군 장병, 의용소방대, 공무원, 광양시의회,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활동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수해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과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4일 '2025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 2세대를 첫 선정하고, 본격 사업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는 내용.

빈집 리모델링으로 영암군은 도시 미관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빈집 2곳 새단장한다

'2025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대 선정... 내년 입주 예정

정비,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효과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6월 신청자를 접수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2세대

를 선정했다.

선정된 집 소유자와 5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올해 하반기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에 입주자를 들인다는

계획이다.

신환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방치된 공간을 사람 사는 집으로 되살리는 의미 있는 시도다. 살고 싶은 영암, 돌아오고 싶은 영암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7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 사회단체 상생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구례군을 대표하는 23개 사회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위촉식 및 기념촬영, 임원 위촉, 위원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례군지회 김영민 지회장이, 부위원

구례군 사회단체 상생협의회 발족

지역갈등 해소 및 민관 협력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장에는 구례군 재향군인회 유창상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상호성 있는 협의회 운영 방안, 지역 현안 공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민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지역 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체로서 공동체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엔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향후 논의되는 사안들이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협조가 필요하

다"고 당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해소할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와 같은 국제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 여름 휴가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벤트인 '화순 고향사랑, 썸머워크'를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 고향 방문 및 타 지역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활용하여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내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선착순 30명에게는 스타벅스 1만원 모바일 쿠폰이 추가로 증정되며, 당첨자는 8월 초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사이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뱅킹 앱 또는 오프라인(NH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주최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화순 고향



사랑, 썸머워크' 이벤트가 여름휴가처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자 중심의 실질적인 혜택과 공감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일상 속 나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